

## Governance Opinion

〈아낌없이 주는 나무, JS전선〉

**원** 전 비리 사태와 관련해 LS그룹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년에 걸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키고 사태가 확산되자 LS그룹은 JS전선을 자진 상장폐지하고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회사를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한 순간에 정리한다고 하니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시장의 반응도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오너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칭찬과 박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감한 결단 덕분에 LS그룹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 될 것이며 다른 관련 기업들의 기업 가치에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여기에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 기금으로 1천억원을 출연하고, JS전선 종업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사회적 파장과 임직원에 대한 피해에 대해 LS그룹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오너 일가가 JS전선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공개매수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제스처다. 이러한 그룹과 오너 일가의 결정에 속죄, 결자해지 등 긍정적인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 모두 문제와 책임이 끝나는 것일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 JS전선을 통한 오너 일가의 배불리기

우선 LS전선은 JS전선 인수 후 배당을 통해 상당한 현금을 이미 챙긴 바 있다. LS전선은 JS전선의 지분을 약 70%를 보유했으며 순이익의 절반 가량을 배당하는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22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다.

JS전선의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연도	당기순이익	배당총액	LS전선 지분율(%)	LS전선 배당액
2012년	12,565	3,413	69.92	2,386
2010년	-5,441	5,689	69.92	3,978
2009년	26,801	10,240	69.92	7,160
2008년	10,260	5,689	78.70	4,477
2007년	11,134	5,689	78.70	4,477

※ 2011년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LS그룹은 단순 배당 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서도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JS전선은 전선 제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재료인 동 소재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Cathode)을 LS글로벌로부터 장기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구분	매출	LS글로벌로부터 매입	LS글로벌에 대한 매입채무 등
2013. 반기	295,131,587	47,620,268	231,768
2012년	581,810,770	152,161,351	432,920
2011년	530,235,393	179,049,776	184,140
2010년	558,844,839	205,407,777	1,652,208
2009년	461,175,325	154,650,618	833,790
2008년	478,395,428	136,555,067	-
2007년	370,964,468	102,018,973	-
2006년	302,099,495	81,284,377	7,682,510
2005년	195,803,087	45,984,412	262,619

위의 표에서와 같이 JS전선은 LS글로벌로부터 매년 1~2천억원의 전기동 등을 매입하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매입채무는 거의 없다. 매입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고 있는 것이다.

LS글로벌은 2005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금속 및 비금속 합금 구매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이 신설법인은 JS전선을 포함한 LS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LS글로벌은 2007년 2,7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5천억원대 매출을, 그리고 2010년에는 770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최근 20102년에는 8천억원대까지 매출이 증가한 상태이다. 자본금 10억원의 신생법인이 설립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수천억원

매출을 기록하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계열사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성장이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를 그리고 나머지 LS그룹 오너 일가가 49%를 나눠 갖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 11월에 (주)LS는 LS글로벌 지분 전량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주주명	변동 전		변동 후		취득/처분 (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금액	단가
LS전선	102,000	51.00%	-	-	10,215,300,000	100,150
구본웅	9,800	4.90%	-	-	981,470,000	100,150
구본혁	9,800	4.90%	-	-	981,470,000	100,150
구동휘	14,700	7.35%	-	-	1,472,205,000	100,150
구희나	9,800	4.90%	-	-	981,470,000	100,150
구소희	9,800	4.90%	-	-	981,470,000	100,150
구지희	3,920	1.96%	-	-	392,588,000	100,150
구자은	5,880	2.94%	-	-	588,882,000	100,150
구재희	4,900	2.45%	-	-	490,735,000	100,150
(주)LS	-	-	200,000	100.00%	20,030,000,000	100,150

JS전선 등의 막대한 매출 거래를 통해 몸집을 불린 LS글로벌의 주주들은 설립 6년 만에 회사를 매각했으며 상당한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주당 5천원에 취득한 LS글로벌 주식을 20배가 넘는 주당 100,150원에 매각함으로써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LS전선을 제외한 구씨 일가가 LS글로벌에 투자한 금액은 고작 3.4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6년만에 68.7억원이 되어 돌아왔으며 자그마치 65억원의 차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 JS전선 등과의 거래는 고스란히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된 셈이다.

## JS전선의 공개매수자들은 누구인가?

금번 JS전선의 공개매수자로 나선 그룹 오너들은 다음과 같다.

이름	구분	생년월일	국적	주 소	약력
구자열	개인	19530302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現 LS 회장
구자홍	개인	19461211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現 LS미래원 회장
구자용	개인	19550327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現 E1 회장
구자은	개인	19641018	대한민국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現 LS전선 사장
구자엽	개인	19501230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現 LS전선 회장
구자균	개인	19571008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現 LS산전 부회장
구태희	개인	19230624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現 LS전선 명예회장
구자명	개인	19521125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現 LS니꼬동제련 회장

이들은 결자해지와 속죄의 차원에서 사재를 털어 공개매수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공개매수에 나선 이들이 어딘가 낯 익다.

공개매수자	LS글로벌 주주	관계	LS글로벌 매각 대금	비고
구자열	구동휘	父子	1,472,205,000	
구자홍	구본웅	父子	981,470,000	
구자용	구희나	父女	981,470,000	
구자은	구자은	본인	588,882,000	
구자엽	-	-	-	현 JS전선 대표이사
구자균	구소희	父女	981,470,000	
구태희	-	-	-	LS전선 명예회장
구자명	구본혁	父子	981,470,000	

위의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LS글로벌 주주 구지희와 구재희는 구동휘(구태희의 동생) 전 명예회장의 딸이며 현재 LS전선 사장인 구자은과는 남매지간이다. 금번 공개매수에 나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하나 같이 JS전선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LS글로벌 주주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이다. 참으로 따뜻하고 각별한 가족의 모습이다. 참고로 구동휘는 이제 고작 서른을 넘긴 나이이며, 구본웅, 구본혁 역시 30대 중반에 불과하다. 구희나, 구소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LS글로벌을 통해 10억원 남짓한 막대한 현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큰 선물을 안겨준 JS전선에 분란이 일어나자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들이 두발 벗고 나서서 불을 끄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그 과정에서 JS전선과 LS그룹을 믿고 투자해 온 JS전선의 일반 개인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JS전선이 소액주주 수는 4,547명이고 보유주식수는 총 3,206,213주이다. 평균 1인당 705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며 종가인 5,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370만원 수준이다. 900원을 얹어 준다면 평균 63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오너 일가가 소액주주들에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다.

결국 LS그룹과 오너 일가는 JS전선의 배당을 통해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JS전선과의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의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었다. JS전선을 통해 LS그룹과 오너 일가는 앞뒤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LS그룹은 JS전선을 빠른 속도로 정리하면서 금번 원전 비리 사태로 얼룩진 부정적 이미지까지 세탁하는 등 마지막까지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면서 그 동안 JS전선과 LS그룹을 믿고 투자해 온 주주들에게는 JS전선의 순자산가치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주겠다고 선심을 쓰듯 생색을 내고 있다. JS전선의 지원 아래 LS그룹 오너 일가는 5천원짜리 주식을 10만원에 되파는 잭팟을 터뜨렸으면서 주주들에게는 고작 9백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면서 소액주주 보호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